



정읍시, 어린이 건강·장애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읍시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키운다. 시 보건소는 유아 대상 건강 교육과 장애 인식 개선을 결합한 특별 체험 프로그램 ‘샘골건강동산 & 어린이장애체험교실’을 마련하고 참여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재원 중인 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들의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한 신체 발달을 도우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올바른 대응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체험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건강 프로그램에서는 허들과 홀라후프를 활용한 장애물 넘기, 스텝 사다리 건너기, 고리 던지기 등 놀이형 신체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신체조절력과 균형감각을 향상시킨다. 장애체험 활동에서는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 보거나 흰 지팡이를 사용해 점자 보도블록 위를 걸으며 장애인의 일상을 직접 경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배려와 포용의 가치를 체득하게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 직원 대상 정책홍보 역량 강화 교육

남원시는 지난 28일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강당에서 정책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챗지피티를 활용한 보도자료 작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이 보도자료 작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 강의는 인공지능(AD) 리터러시와 챗지피티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산업기술원 사회소통망(SNS) 연구소 이영환 소장이 진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사회복지관서 온마을돌봄단 발대식

남원시사회복지관(관장 강정아)과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차미희)는 지난 26일 남원시사회복지관에서 ‘온마을돌봄단’을 발대하고 고립 인식 개선 캠페인의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온마을돌봄단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라는 지역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암동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로, 지역 사정에 밝은 통장 부녀회, 노인회, 주택관리공단 남원노암관리소, 남원시사회복지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애향회, 눈꽃축제 수익금 장학금 기탁

남원시 운봉읍 운봉애향회는 지난 28일, 최근 개최한 제11회 지리산 남원 바래봉 눈꽃축제 수익금 1,000만원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춘향장학재단에 기탁했다.

이번 운봉애향회 장학금 기탁은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의 성원으로 눈꽃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대한 사회 환원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신동열 애향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운봉애향회가 되겠다”고 밝혔으며, 최경식 시장은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운봉애향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제80회 식목일 기념 행사 성황리 마쳐

순창군, 경천면서 군민·공무원 등 1000여명 참석... 총 1722㎡의 잔디 심고 정화 활동

순창군은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28일 순창읍 경천면에서 군민과 공무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청, 군의회, 산림조합, 지역 사회단체가 적극 참여했으며, 경천면에 모인 참가자들은 총 1,722㎡의 잔디를 정성껏 심고 하천변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잔디 심기와 환경 정화 작업을 통해 친환경적 삶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산불 발생으로 인해 환경 보호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더욱 고취시키는 기회가 됐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행사가 산림 자원 보호의 중요성을 지역 사회에 널리 알리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순창군 만들기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 정화 및 식목 행사를 통해 순창군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일기자

장수교육지원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실시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지난 28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관내 통학버스(전세버스 포함) 운영학교 관리자 및 운전자, 동승보호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김아름 교수를 초청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개정 법령과 운전자,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의 의무 및 안전운전을 주제로 관내 통학버스 운영 관계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육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교육이지만,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느슨해진 나의 긴장감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더 꼼꼼히 살펴겠다”고 전했다.

추영곤 교육장은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책임져주는 운전자와 동승보호자들이 있기에 학생들의 안전하고 순조로운 하루가 완성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한 발판이 되어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 도통동, 도통지구대·소방서 등과 재난 대응 업무협약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은 지난 27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통지구대, 남원소방서(대장양과), 남원의용소방대, 남원여성의용소방대, 도통자율방범대, 도통발전협의회, 도통동장협의회, 도통주민자치회, 금강건설, 남원부영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민·관 14개 기관과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통동 관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초기 대응체계 구축, 안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남원부



영아파트는 산불비상 주민 대피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산불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대피활동을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협약 체결 후에는 봄철 산불에 대비해 산불 진화 장비 조작법을 실습하며, 민·관 협력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선자 동장은 “앞으로도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고위직 공무원들 대상 폭력예방교육

남원시는 지난 28일, 시장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 67명을 대상으로 2025년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1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번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서는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례와 원인분석을 통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관리자의 역할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남원시 여성가족과 김미옥 과장은 “고위직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것으로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과 건강한 직장 문화를 위해 소속 전체 공무원이 함께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 법무보호공단,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지난 28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를 방문해 특별교통 안전교육 대상자들에게 개시 교육 및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로, 보호공단의 교육 강사는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허그알자리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법무보호사업을 교육하였으며, 면허 재취득 및 원활한 사회복귀와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보호상담 접수를 실시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상담 및 자립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전기안전공사, 영남권 산불 이재민 지원 나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이 영남권 산불 이재민 돕기에 나섰다. 피해지역 이재민 시설의 전기설비 안전점검을 긴급 진행하는 한편, 피해 지자체에 1,500만원의 성금도 기탁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7일 남화영 사장과 임직원이 경북 의성 실내체육관과 안동 실내체육관을 방문해 산불 이재민 대피시설의 전기설비 안전상태를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는 22일부터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이재민 대피시설 71곳의 전기설비 긴급 안전점검을 끝마친 상태다. 산불 진화 이후 피해지역 주택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복구활동 등에도 나설 예정이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성묘객 실화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번 산불은 27일 기준 인근 안동시와 청송·영덕군 등으로 번져나가고 있으며,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국토정보공사 무주지사, 무주군에 고향사랑 기부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 무주지사 직원(11명)들이 지난 28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2023년 1백만 원, 2024년 1백만 원에 이은 3년 연속 기탁이어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정인영 지사장은 “무주군에서 일하는 직원들 모두 무주가 내 고향이라는 생각, 주민들이 모두 내 이웃이라는 마음으로 지역개발과 군민 재산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라며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고향사랑기부금이 무주발전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공간정보에 관한 지역제도 연구, 기술개발 및 지적측량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행보 나눔 무로 측량’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양시춘·김부심 부부, 무주군에 장학금 1천만원 기탁

무주군 적상면에 거주하는 양시춘·김부심 씨 부부가 지난 28일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에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양시춘 씨는 “다른 지역에서 30년간 직장생활을 하다가 무주로 귀향했다”라며 “나를 길러준 고향, 다시 와도 변함 없이 품어주는 무주에 대한 고마움을 장학금으로 전하게 돼 뿌듯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내과와 모은 마음이 무주 학생들에게 좋은 학습 환경을 만들고 꿈을 뒷받침하는 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제시보건소, 음식 문화개선 실천 희망 업소 모집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낭비적인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친환경 음식문화 확산을 위해 ‘음식문화 개선 실천 업소’를 오는 4월 1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중 일반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실천 지정 스티커와 함께 남은 음식 줄이기 물품지원(포장용기, 포장봉투, 개인별 위생장기 등 8종)을 지원하고 그 외에도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각종 홍보물도 배부한다.

신청 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30개소 모집 시 조기 마감할 계획이다. 참여를 원하는 업소는 음식문화개선 실천업소 참여 신청서와 실천 서약서를 갖춰 김제시보건소 보건위생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의식업소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위생의식을 향상시키고 영업소 위생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곽도태 기자